‘무주반딧불축제’ 숙박 혜택 풍성

9월 6~14일 50여개 관광숙박시설 방문객 인센티브·부대 시설 이용 할인 제공

무주반딧불축제 관광객 인센티브 할인티켓

제29회 무주반딧불축제를 앞두고 무주덕유산리조트와 나봄리조트, 일성무주리조트 등 무주군 지역 내 관광숙박시설(리조트, 팬션) 및 야영장 등 50여개 업체가 축제 방문객 인센티브 제공에 동참하고 나섰다.

무주군에 따르면 9월 6일부터 14일까지 무주반딧불축제 누리집 ‘축제 자료마당-관광객 인센티브’ 페이지의 할인티켓을 출력해서 제시하면 이용 업소별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나봄리조트의 사우나, 수영장 등 부대 시설도 25~30%, 무주덕유산리조트의 관광 곤도라(당일 사용), 그린벨리(골프장)는 30%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김광용 무주반딧불축제지원단 총괄팀장은 “한낮의 ‘반딧불이와 함께하는 생태탐험’부터 한밤의 ‘신비탐사’까지 무주반딧불축제를 온전히 즐기기 위해서는 1박 2일 또는 2박 3일 체류형 투어를 추천한다”라며 “여러분의 알뜰한 무주 여행을 돕기 위해 지역 내 관광 숙박시설에서도 동참해 주시기로 한 만큼 무주반딧불축제 누리집을 참고하셔서 전화로 예약, 쿠폰 제시 후 할인받아 보시라”고 전했다.

이어 “올해는 인센티브 혜택을 원했지만 누리지 못했던 분들이나,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축제 현장 내 관광안내소와 축제장 매표소 등에서 쿠폰을 받을 수 있다”라며 “누구나 손쉽게 참여하고 알차게 즐기는 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무주군은 참여 업소 정보와 참여 방법 등을 무주반딧불축제 누리집에 게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광숙박시설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홍보 등 모집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홍삼·유럽 교류 새로운 장 연다

이탈리아 바티칸 수도원 관계자들, 19~20일 진안 방문

진안군은 이탈리아 바티칸 수도원 관계자들이 19일부터 20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진안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진안의 대표 특산물인 인삼과 홍삼을 유럽 시장에 소개하고 상호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방문단은 △움베르토 나르디 박사(바티칸 수도원), △강광배 교수(산소존), △한현택 몬시뇰(Monsignor) 신부로 구성됐다.

이들은 인삼 재배지와 홍삼 가공시설, 홍삼한방센터 등을 찾아 인삼재배에서 홍삼 가공·연구·유통·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을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10월 진안군이 홍삼 원물을 들고 바티칸을 찾으며 시작된 교류의 연장선상에 있다.

당시 논의를 토대로 바티칸 수도원은 홍삼을 활용한 연구를 진행해 올해 5월 국제학회(SIME)에서 그 성과를 발표했으며, 이번에는 연구 결과로 개발된 샘플 상품을 진안군에 직접 선보이고 앞으로의 협력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진안홍삼연구소에서는 ‘진안홍삼의 화장품 브랜드 가치 제고’를 주제로 세미나가 열린다. 세미나에는 전국 화장품 기업과 관내 인삼·홍삼 관련 기업,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해 △진안홍삼을 활용한 연구 성과 △유럽 진출 사례 △유효성분 기반 화장품 혁신 방안 등을 발표하고 토론한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무풍면, 돌봄 체계 강화

무주군 무풍면이 1인 거주 어르신들의 안전과 건강, 정서, 생활 안정을 위해 돌봄 체계를 강화하고 나섰다.

무풍면에 따르면 지역 내 1인 거주 어르신 가정은 150가구로 월 1회 복지담당 공무원들과 독거노인생활관리사가 만나 소통하며 고위험 어르신을 분류하는 등 관리에 정성을 쏟는다.

또한 독거노인 가정을 동행·방문해 건강 및 생활 실태를 점검하고 개인의 상황과 형편에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황조연 무풍면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장은 “지역 특성에 맞춘 재가중심 서비스로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내실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이탈리아 한국 전통문화 예술 축제서 ‘진안방문의 해’ 홍보

진안군은 이탈리아 토스카나주 조각예술의 도시 피에트라산타(Pietrasanta)에서 열린 한국 전통문화 예술 축제에 참여해 ‘2026 진안방문의 해’를 세계에 알렸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축제는 지난 8월 14일까지 피에트라산타 광장과 주요 전시 공간 일대에서 한국의 미술, 음악, 전통 공연, 특산물 전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돼 현지인과 관광객들에게 큰 관심을 모았다.

이번 축제는 갤러리 일백헌 대표 김경수 씨와 글씨21 대표 석태진 씨가 기획했으며, 진안군에서는 전(前) 관광두레 PD 조서연 씨가 현장 총괄 디렉터로 참여해 진안의 문화와 관광자원을 직접 알렸다.

행사 기간 동안 진안군은 ‘2026 진안방문의 해’를 홍보하기 위해 기념 부채와 진안군 캐릭터 ‘빠망이 키링’을 현장 참가자들에게 나누며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관람객들은 “마이산이 조선왕조가 시작된 곳”이라는 역사적 사실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한국의 역사와 전통에 대한 이해를 넓혔으며, 많은 유럽인들이 2026년 진안을 방문하겠다고 약속하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진안=우태만 기자

‘비상 대응 태세 확립’ 을지연습 실시

무주군

무주군이 2025 을지연습에 들어갔다. 훈련기간은 18일부터 21일까지로, 무주군 공무원들은 18일 새벽 불시 비상상황 소집에 응소하는 등 첫날 훈련에 임했다.

을지연습은 4일간 무주군청 전시 종합상황실을 비롯한 재난안전상황실과 무주양수발전소 등에서 실시될 예정으로, 무주군 공무원들을 비롯한 지역 내 군·경·소방 등 관내 6개 기관이 전쟁과 재난 상황을 가정한 실전 대응 훈련에 동참한다.

19일에는 전시 운영계획을 검토·보완하기 위해, 군청 각 부서와 유관 기관이 함께하는 전시 현안 과제 토의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충무계획의 개선사항을 발굴, 유사시 즉시 반영할 계획이다.

20일에는 무주군, 진안·무주 대대, 무주양수발전소, 무주경찰서, 무주소방서, 한국전력 무주지사가 드론과 적 특수부대의 침투를 가정한 국가중요시설(무주양수발전소) 테러 대응 훈련을 실시한다.

또한, 주민 참여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이 무주소방서 주관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과 연계해 진행된다. 21일에는 다양한 전쟁 양상을 반영한 기관장 주재 도상연습도 실시된다.

전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합위기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의사결정 과정과 부서 간 협업 체계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장수군은 18일부터 21일까지 3박 4일간 장수군청 을지연습장에서 ‘2025 을지연습’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습에는 장수군을 비롯해 유관기관, 군부대, 경찰서, 소방서, 민간단체 등에서 300여 명이 참여한다.

연습 첫날인 18일에는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비상소집 훈련’이 진행돼 공무원 소집태세와 비상 전파 체계 등을 점검했다.

또한 전시 직제 편성을 통한 개인 임무 고지 및 전시 창설기구 훈련도 병행해 실시했다.

이어 오는 20일까지 전시 상황에 따른 각 부서별 현안과제를 토의하고 기관별 비상대비계획을 면밀히 검토해 보완점을 도출할 계획이다.

또한 훈련 기간에는 상황별 ‘도상연습’과 ‘현안과제·예산편성 훈련’, ‘8월 공습대비 민방위훈련’이 이어진다.

특히 오는 20일 오전 11시에는 한누리 전당에서 장수군 주관으로 군·경·관·민이 함께하는 ‘한누리전당 폭발물 테러 종합 대응’ 실제 훈련이 진행된다.

/장수=고판호 기자

지역 소식통

진안군, 압류물품 7점 전자공매 추진

진안군은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으로 압류한 명품시계·가방·골프채 등 동산 7점을 전북특별자치도 합동 전자공매에 부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매는 전북특별자치도와 도내 7개 시·군이 합동으로 진행하며, 9월 1일부터 3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청 1층 로비에서 물품 전시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현장에서는 공매 물품을 확인 가능하고,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는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전 국민이 입찰 가능하다. 낙찰자는 최고가 입찰자가 되며, 낙찰 결과는 9월 4일에 발표된다.

장시동 재무과장은 “공매를 통해 얻은 수익은 체납액 해결과 함께 올바른 납세문화 확산에 사용될 것”이라며 “많은 분들이 이번 합동 공매에 참여하셔서 마음에 드는 물품을 구매하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2026년 농업기술 시범사업 수요조사 실시

장수군은 농업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사업 추진을 위해 18일부터 오는 9월 5일까지 2026년도 농업기술 시범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역 농업인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농업기술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전절차로 내년도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조사 대상 사업은 농업기술 분야 11개 사업으로 대표적인 사업은 △미래형 사과 다축과원 조성 시범 △친환경 쌈채류 고설재배 기술지원 △시설하우스 토양병해충 방제 지원 △고온기 사전대응 차광도포제 지원사업 등이다.

사전 수요조사 신청 및 접수는 각 읍·면 농업인상담소 및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를 통해 가능하며 신청 자격은 관내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이다.

농업기술 시범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 홈페이지 공고를 확인하거나 기술보급과 과수지도팀(063-350-2851)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수=고판호 기자